

高麗 金銅大塔의 新例

鄭 永 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 조사된 金銅, 혹은 靑銅製塔은 대개가 二〇~三〇cm 內外 높이의 小塔이고 五〇cm 가 넘는 것도 극히 드물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하려는 金銅製塔은 현재의 높이가 一五五cm로서 小形 石造塔과도 같은 크기의 巨作이며 이렇듯 巨大한 金銅塔이 조사된 바는 아직 없었으므로 論題를 「金銅大塔의 新例」라 하였다.

이번 國立中央博物館에서 열린 「韓國美術二千年展」에 있어서 佛·菩薩像과 多樣한 佛具를 비롯하여 各種 金屬 및 陶磁工藝品, 그리고 많은 書畫 등이 出品되어 각 분야에 있어 귀중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佛敎美術을 공부하고 있는 筆者로서는 자연이 佛敎的인 金屬工藝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전시장에 들어섰으며 여기에서도 한눈에 크게 놀라게 하였던 것은 首題의 金銅大塔이었으니 그 거창한 雄姿와 全面에 滿鑣한 表面裝飾의 意匠과 技法에는 모두 다 일치된 경악의 감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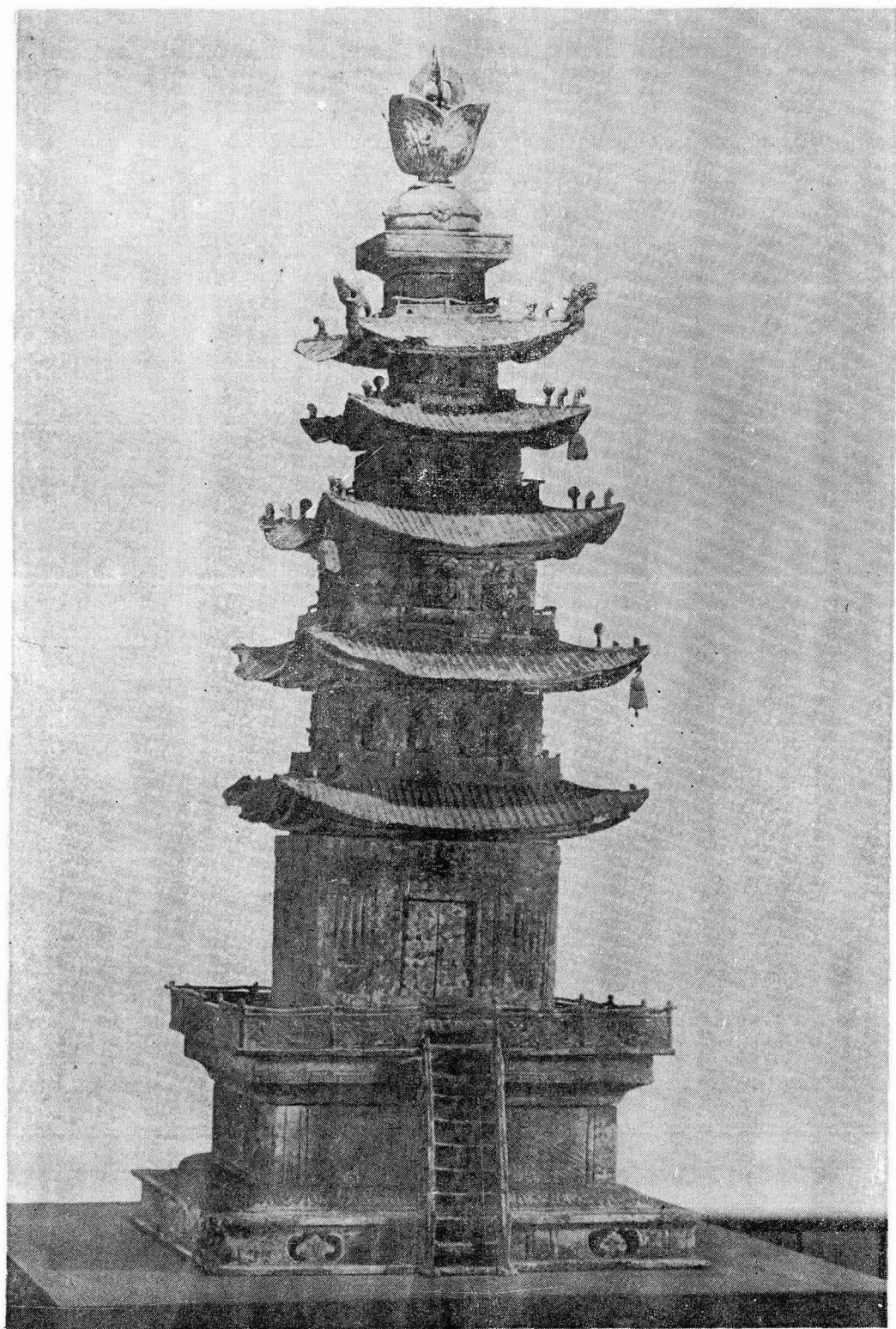
이 조각의 金銅大塔은 湖巖 李秉喆氏 秘藏品의 하나로 이번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오래전에 충청남도 論山郡 連山面 天護里에 있는 開泰寺址 부근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바 그 정확한 출처도 지점과 확실한 수습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①

이塔은 基壇部 위에 塔身部를 구성하고 그 위에 相輪部를 장식한 이른바 一般塔婆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특히 羅·麗代의 典型的인 石塔基壇形式인 二層基壇을 이루고 塔身部에 있어서도 別造한 屋身과 屋蓋를 重積하고 있어서 一般型石塔의 樣式을 보이는 金銅製의 塔婆라 하겠다. 形제上·下二層의 基壇 위에 五層 塔身을 형성하고 있으나 初層에 있

어서 屋身은 上層基壇上面에 마련한 塔身의 임대에 꼭 맞는 것이고 또 同一鑄品이어서 初層屋身이 분명하나 屋蓋는 下面의 받침대가 屋身보다 작아서 맞지 않으므로 이 身·蓋사이의 部材가 결실되었음이 확실한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身·蓋의 各 규격과 塔身 전체의 調和로 보아 적어도 한두층의 身·蓋는 더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二層 이상에 있어서는 二層의 身·蓋는 맞으나 三層과 四層의 身·蓋에 있어서도 맞지 않아서 자기 한층씩의 部材가 결실 되겠 같고 五層은 맞는 身·蓋인 것 같은데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이 金銅塔은 본래는 적어도 九層의 塔身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相輪部에 있어서는 露盤, 覆鉢위에 仰花形이 놓여 있고 그 위에 寶輪 寶蓋 寶珠 등의 莊嚴은 없으나 別造된 水烟이 頂上을 장식하고 있다.

各 部材의 구성은 下層基壇과 上層基壇面이 하나로 造成되고 上層基壇甲板과 初層屋身이 하나이며 이상의 身·蓋에 있어서는 初層屋蓋와 二層屋身이 하나로 造成된 형태와 같이 下層의 屋蓋와 그 上層의 屋身을 하나로 鑄成하였다. 相輪部에 있어서는 最上層의 屋蓋와 露盤身部를 하나로 만들고 露盤蓋板과 그 위의 覆鉢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 위에 놓은 仰花形과 水烟은 자기 별개로 만들어서 현재 이 金銅塔은 모두 十개의 造成部材로 組立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현재의 層數가 五層의 塔身이므로 여기에서는 현 상태에서의 各層과 各部 구조를 살펴보고자 함이니 各層의 指稱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현재의 復原상태에서 본다면 이 金銅塔은 二層基壇위에 五層의 塔身을 安置하고 塔頂은 相輪으로 莊嚴한 一般型 通式의 塔으로서 全面에는 거의 靑銹가 덮혀 있고 각 部材의 일부부분에 鍍金이 남아 있는데 金色은 물론 찬란하나 全面에 덮힌 푸르고 파란 녹색갈(銹色)은 金色에 못지않게 마치 비취색과도 같이 아름답다. 많은 金屬物 金屬工藝品을 過眼하였지만 녹색은 靑綠色에서 아직껏 이렇게 창연한 金屬色을 보이는 遺物을 대해 본적은 없다. 아마도 筆者가 이 展示室에 들어서자 첫눈에 이 大塔을 着眼하게 된 것은 우선 이렇듯 古色 찬란한 色感에 매혹되었던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高麗金銅大塔(李秉喆氏所藏)

基壇部에 있어서는 石塔에서의 地臺石과도 같이 四周에 板臺를 마련하고 그 위에 下層基壇을 구성하였다. 各面에는 兩隅柱가 刻出되고 二柱의 撐柱로서 三等分하여 그 三處에 各一區式的 眼象을 透刻하였으며 各眼象內에는 下端部에서 올려 立狀으로 圓刻한 귀꽃紋이 一葉式 장식되었는데 下面의 彫飾에서 特記할 것은 眼象주위와 兩隅柱 및 二撐柱 左·右에 또 하나의 線刻이 있어 各己의 副緣이 마련된 점인 바 이러한 隅柱나 撐柱의 형태는 高麗時代에 建造한 石塔에서 간혹 볼 수 있다. ② 下層基壇 上面에는 弧形的의 높직한 蓮華座의 괴임대가 마련되고 그 上·下端에 各一段式的 낮은 角形괴임이 刻出되어 괴임대의 實數는 大·小 三段이라 하겠다. 蓮華臺는 數葉이 겹친 復瓣 伏蓮으로 各面이 똑같은데 中心에 正面을 향한 一瓣이 彫飾되고 그 左·右에 四瓣式이 斜形으로 배치되었으며 각 모서리마다(四隅) 一瓣式을 조각하였다.

上層基壇面은 兩隅柱가 彫出되고 中央의 一撐柱로 二等分하였는데 隅柱와 撐柱는 下基面과 같은 형식으로 그 左·右에 副緣이 있다. 撐柱로 兩分한 各面에는 이른바 斜格子文의 화려한 展開로 各斜行線文 사이에는 連珠文을 滿鑲하여 華奢한 側面을 이루고 있다. 基壇面부와 別造한 上基甲板은 下面에 反曲된 副緣이 있고 上端에는 欄干을 둘러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各部の 裝飾 또한 注目を 끌고 있다. 즉 反曲으로 나타난 副緣에 陰刻한 二條의 綠文 사이에 連珠文을 넣었고 甲板의 各側面에 連珠文을 큼직하게 장식하였으며 上端部 線刻內에 四葉圓座紋을 둘러고 있다. 欄干은 樓亭에 둘러진 형식과도 같은 外形이나 여기서는 欄干淸과 交欄 등의 구별이 없이 全面을 忍冬唐草紋으로 장식하였는데 그 紋樣은 透刻이 아니고 側面板에 陽刻한 것이다. 欄干의 기둥은 四隅에 하나씩 있고 前·後方에 단은 층계가 있어서 그 층계의 上端部를 놓는 中央部에 두개의 기둥과 그 양쪽에 하나씩 있어 모두 네개(四柱)이며, 左·右側面에는 세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비록 交欄이나 淸淸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上端部에 이르러 둘러 둘러와 圖竹은 제대로 표현했으며 특히 각 기둥에 法首가 정연하여 木造架構인 軒欄의 격식을 따르고 있음은 분명하다.

前·後方に 架設한 層階는 양쪽이 같은 형식으로 下臺에서 上層基壇



金銅大塔의 基壇部



金銅大塔의 塔身一部

上端의 欄干에까지 세워졌다. 자기 九層段이며 그 경사가 아주 급한데 그것은 上·下層의 基壇이 높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계단 양쪽에는 上基의 欄干과 비슷한 형식의 막음 장식이 있는데 左·右外側面에는 欄干청관 등에 唐草紋이 陽刻되고 上端部에는 돌란대 위에 세개의 童子柱로 圖竹을 받치고 있으며 下端 양쪽 기둥에는 法首가 표현되었다. 이 九段씩의 前·後方 層階는 下層基壇에 固着 造成한 것으로 그 上端部를 上層基壇 甲板과 欄干部에 붙쳐 固定시키도록 되었는바 그러므로 階段이 닿는 前·後方欄干의 中央에는 側面이 막음장식이 없고 층계의 넓이만큼 열려 있는 것이다. 塔身部를 받는 괴임대는 弧形의 높직한 蓮華臺가 마련되었는데 그 下端에는 낮은 角形 一段의 괴임이 있고 上端에는 二段의 낮은 角形 괴임이 刻出되었다. 蓮華臺는 基壇部의 蓮瓣과 같은 형태로 數葉이 접친 複瓣 伏蓮이 둘러졌는데 各面이 똑같은 형식으로 中心에 正面을 향한 一瓣이 彫飾되고 그 左·右에 三瓣씩이 비스듬하게 조각 되었다.

塔身部에 있어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차례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初層屋身은 龕室을 마련하여 前·後面에 門扉를 설치하였는바 그러기에 前·後方에만 올라가는 階段을 開設한 것이다. 門扉 밑에는 信防과 下防이 표시되고 左·右에는 문설주가 세워져 있는데 門扉 자체의 형태는 前·後面이 같지 않다. 즉 前面은 左·右가 別個로 造成되어서 關閉할 수 있게 하여 實感이 나는 문짝이고 특히 中心部에는 양쪽 門扉에 문고리 하나씩을 달았는데 현재 右側의 고리가 파손되었으며 門扉 表面에는 양쪽이 꼭 같이 一列 قم직한 三珠의 連珠紋 四列이 장식되었다. 後面은 흔히 石塔이나 石造浮屠의 門扉形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表面에 線刻으로 左·右門扉의 區別만을 표시하고 中心 上部에 자물통을 陽鑄하였으며 門扉表面의 قم직한 珠紋 장식은 左·右가 前面보다 一列 많은 五列씩이다. 門扉 左·右에는 平柱와도 같은 기둥이 하나씩 표시되고 屋身の 양쪽 모서리 隅柱도 平柱로 표시하였으며 각 柱頭에는 頭工이 보이어 곧 木造建物の 翻案임을 알 수 있게 한다. 門扉 左·右間 壁에는 窓戶가 마련되어 고리도 한개씩 突出되었는데 창살이 透刻이 아니므로 通風窓口는 아니다. 그리고 窓戶의 上·下部와 門扉의 上部 各

面에는 圓座紋 連珠紋 斜格子紋 등을 화려하게 施紋하였는바 이러한 各層 문양은 이미 基壇部의 上層基壇面과 甲板의 副緣 및 側面 장식에서 살펴본 형태들이다. 初層屋身 左·右面은 門扉가 있는 前·後面과는 다르다. 즉 左·右의 모서리에 隅柱대신 平柱를 마련한 것은 같다고 하겠으나 壁面에 표시한 平柱는 前·後面보다 一柱가 많은 三柱이며 이밖의 기둥의 형태 특히, 柱頭와 소로, 침차 등의 頭工은 모두 같은 양식이다. 이렇듯 左·右面은 平柱 三柱씩을 세웠으므로 결국 각면이 四分된 것이나 그 間壁面은 左·右면 一問씩이 좁고 中間의 二問이 다소 넓은 편이다. 四分되어 결국 四問의 壁面을 이룬 左·右側面은 各問에 窓戶를 開設하였는데 이 窓戶의 上·下部에는 前·後面과 같은 圓座紋 連珠紋 斜格子紋 등을 彫飾하여 화려한 屋身面을 이루고 있다. 窓口는 中間의 다소 넓은 二問에는 자기 창살 다섯을 세워 표시하였는바 透刻이 아니므로 通風은 안된다. 그러나 左·右면의 다소 좁은 두칸에는 자기 창살 세개를 透刻하여 이른바 通風窓口를 마련 하였는데 이것은 左·右側面이 대칭이므로 실질적인 면이나 혹은 造形的으로 보아 構圖上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配置라고 생각된다.

初層屋蓋는 현재가 본래의 것이 아니므로 잘 맞지 않아 유감인데 각 부구조만을 살펴보면 우선 下面 四邊의 各邊 中央에 長方形孔이 하나씩 마련된 것이 보인다. 이것은 屋身 各上邊 中央에 矩形 突起가 하나씩 圓刻되었는데 이 突出部가 바로 屋蓋下面의 長方孔에 꼭게 되어 身·蓋를 固定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初層에서 뿐만 아니라 各層이 모두 취하고 있으니 이렇듯 大塔의 高層인 경우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各層의 身·蓋를 固定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수긍이 되는데 各層의 上端邊에는 지금도 한두개 突起가 남아 있다. 屋蓋 下面에는 石塔에서 볼 수 있는 屋蓋받침이 一段 있고 네 귀퉁이의 아래는 길며 처마끝에서 아래를 二段으로 配置한 겹처마를 이루고 있다. 落水面은 정연한 개와골이 표현되었으며 四週 合角의 추너마루에는 寶珠와 龍頭 등을 圓刻 配置하여 미치서울 南大門이나 東大門의 지붕 추너마루에서 볼 수 있는 雜像의 配置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屋蓋上·下面의 구조는 上層部까지 各層이 同一한데 다만 各部의 修飾에 있어서 殘



金銅大塔의 上部

存莊嚴物이다. 즉 初層屋身에는 추너마루에 配置物의 附着痕跡만이 있을 뿐 아무런 殘留物이 없으나 二層(三·四層)에는 추너마루에 큼직한 寶珠가 남아 있고 특히 下面의 사래끝에는 風鐸이 各層 하나씩 달려 있어 注目を 끈다. 風鐸은 사래끝에 마련한 고리에 달도록 되어 있는데 上促上寬의 四角長方形으로 各側面은 周緣을 따라 線文이 陰刻되었고 下端은 弧形으로서 四面을 展開한다면 마치 帳幕을 드리운 것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 더우기 五層屋蓋에 있어서는 추너마루에 寶珠가 장식되어 있는 것 이외에 左·右편 추너마루끝에 龍頭가 하나씩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 본다면 右側(向하여)의 龍頭는 떨어진 것을 다시 붙친 것이나 左側의 것은 原形 그대로 이어져 본래의 附着형태나 혹은 鑄造法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 龍頭는 羅·麗代 石碑의 碑座 龜趺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龍頭형식으로서 양쪽 귀에 표현된 毛髮이 사실적이고 두눈과 코 입 등이 사나우며 입에는 큼직한 如意寶珠를 물고 있어 이 金銅大塔의 造成年代 推定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落水面 頂面에는 四方에 欄干을 둘러고 그 안에 잇층의 屋身을 一鑄하였는데 周廻한 欄干의 淸판에 施紋한 唐草文이나 童子柱 둘러대 圓竹 등이 모두 上層基壇部의 欄干과 흡사한 형식으로 장식되어 있다.

二層 以上의 屋身에는 各側面에 如來坐像을 數軀씩 陽刻하였는데 二層에는 各側面 四軀씩이고 三(四層)은 三軀씩이며 五層은 二軀씩이 各側面에 배치되었다. 如來像은 蓮華座위에 結跏趺座하였으며 寶珠形의 頭身光을 具存하였는데 光背 周緣의 火焰紋은 放射線文과도 같아 다소 略式임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이들 各屋身에서도 또한 注目되는 것은 坐像 사이사이에 一柱씩의 平柱를 陽刻하여 그 柱頭に 소로 첨차 등의 頭工을 표시하여 마치 높은 殿閣에 諸尊像을 奉安한 것 같은 형식을 취한 점이다.

현재의 五層屋蓋는 그 頂上에 露盤身部까지를 一鑄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最上層 屋蓋인 줄을 곧 알 수 있다. 露盤 身部에는 塔身部의 屋身에서와 같은 佛像을 모시지 않고 各側面에 連珠紋과 斜格子文을 滿鏤하여 華奢한 側面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注意하여 考察해야 할

점은 各層 屋身에서의 平柱와 같이 이 露盤 身部에도 建物의 平柱를 세 개, 즉 中央 一柱와 左·右에 一柱씩을 표시 하되 柱頭에는 소로 첨차 등의 頭工을 잘 나타내고 있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이 金銅大塔은 初層 屋身부터 最上의 露盤身部까지 各層 身部 各側面에 木造建築物에서 볼 수 있는 平柱를 세워 頭工을 加하고 있어서 마치 高層의 殿閣처럼 보인다. 露盤의 甲板은 밑에 反轉된 副緣이 마련되었는데 反轉의 형식은 基壇部에 있어서 上層基壇甲板의 副緣과 같다. 甲板 側面은 各側面 上·下緣에 線文이 陰刻되고 中間面에는 子房이 있는 四葉의 圓座紋을 가득히 陰刻하였는데 그 형태와 양식은 上層基壇 甲板의 側面 장식문양인 圓座紋과 꼭 같다.

覆鉢은 露盤 頂面中央에 露盤과 一鑄物로 마련하였는데 형태는 日般型石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半球形이다. 弧形의 側面에는 連珠文帶가 둘러 있고 그 珠文帶上的 같은 간격의 네 곳에 圓座葉紋을 장식하였는데 이것은 中心에 큼직한 圓子房을 두고 주변에 九珠를 陽刻한 극히 간결한 장식이다.

覆鉢 위에는 仰花를 莊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 大塔에서도 覆鉢 바로 위에 別造한 仰花形이 하나 놓여 있는데 다른 部分은 仰花로서 수공되거나 下部의 형태가 이 塔에 맞는 仰花인지는 좀 더 研究해 보아야 될 것 같다. 즉 下部가 板臺처럼 넓게 퍼지고 더우기 方形을 이루고 있어서 半球形인 覆鉢上面과는 전혀 맞지 않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圓弧의 覆鉢頂面에 方形臺가 놓여져서 네 귀퉁이가 固定되지 않고 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相輪部材의 놓임은 원칙적이 아니며 아직까지 찾아 보지 못한 遺例이다. 앞으로 細心히 검토 연구해야 할 점이라 생각되는 바 그러므로 筆者는 앞에서 仰花形이라고 우선 적어 보았다. 이 仰花形은 平面 四角으로서 四葉으로 이루어졌으니 네 귀퉁이에 큼직한 單葉仰蓮을 하나씩 배치하여 위에서 보면 네 개의 꽃잎이 활짝 피고 있는 형태이다. 瓣端에 이르러 反轉한 各瓣의 外側面에는 周緣을 따른 몇 점의 蓮瓣紋과 雲紋이 彫飾되어서 더 한층 華奢한 仰花形을 보이고 있다.

이 仰花形 위에는 擦柱가 세워지며 여러개의 寶輪이 끼워지고 그 위에 寶蓋를 莊嚴했었을 것인데 현재는 이들 각종 部材가 하나도 없고 다

만 水烟 하나가 仰花속에 놓여 있다. 水烟의 上·下를 보면 椽柱孔이貫通되었는바 현재는 遺品이 없으나 본래는 椽柱로서 相輪 諸部材를 重積 固定시켰음이 분명한 것이다. 水烟의 형태는 中心에 寶珠하나를 두고 그 四方에 外周를 莊嚴하고 있는데 各面에는 線刻으로 火焰文이 장식되었다. 그리고 이 水烟의 下端部에는 六瓣의 單葉伏蓮이 彫飾되어 있어 또한 이 金銅大塔에 있어서 빈틈 없는 莊嚴意匠을 엿 볼 수 있는 바라 하겠다.

이 金銅大塔의 造成年代를 推定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注目해야 될 점이 있는바 우선 이렇듯 大形 金銅塔이 만들어 지기에는 당시의 國家的인 社會的, 思想的인 諸背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各部樣式과 造成手法를 고찰해 보았을 때 基壇部에 있어서 眼象과 귀꽃紋의 형태는 淨兜寺址五層石塔③과 같은 점이 있고 上·下層基壇面의 隅柱와 撐柱에 副緣이 線刻되었음은 서울 弘濟洞五層石塔④과 같다고 하겠으며 특히 初層屋身에 있어서 各面에 開設한 窓戶는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⑤의 塔身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最上層屋蓋의 추너마루에 圓刻으로 장식한 龍頭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는 新羅下代부터 高麗初期에 걸쳐 建造된 諸石碑의 龜趺에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모든 一連의 比較資料와 이 塔의 各部 彫飾 및 형식에서 추정되는 造成年代는 一〇〇〇年(A, D)을 전후한 十~十一世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金銅塔은 木造建物の 雛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古代建築研究에 貴重한 資料이며 또한 아직 遺例 없는 最大 最秀作의 金銅工藝塔이라 하겠고 이 大塔은 木造物은 물론이요, 石塔 石造浮屠의 諸樣式과 各種紋樣을 망라한 綜合된 美術品이라는 점에서 唯一한 寶塔임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各重要部の 實測値는(cm) 塔身部高二二九 基壇部全高三三·五、地臺板幅 六三 下基面幅 五九·七 高五·九 上基面幅 四四·五 高九·八 初層屋身幅 三一·八 高二一·八이다.

註

① 현재 이곳 天護里의 開泰寺址에는 근래에 새로 세워진 몇 개의 건물로 옛날

開泰寺의 法燈을 이어 받고 있는 「開泰寺」가 있으며 특히 境內에 「開泰寺石佛立像」이라는 칭호로 三軀의 石佛이 寶物 第二一九號로 指定 保護되고 있어 開泰寺 舊基임을 쉽게 알 수 있다. 高麗史世家 卷第二太祖十九年條 末尾에 보면 「創開泰寺於連山」이라 있고 二十三年條에는 「冬十二月開泰寺成設落成華嚴法會親製疏文」이라 보므로 開泰寺는 高麗王建太祖十九年(九三六 A, D)에 창건된 이른바 高麗最初期の 大刹이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三尊의 石像도 高麗初期의 어느 때에 造成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여기에 소개하려는 金銅大塔의 出土地가 확실치 이곳 開泰寺址 부근이라던 당시 開泰寺의 盛觀과 또한 이 金銅大塔 자체의 造緣線由와 그 年代의 추정에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과연 出土地點이 확실하게 기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는데 하루속히 밝혀져서 몇 가지의 의문이 풀여지기를 바란다.

② 가장 좋은 遺例로서는 「서울弘濟洞五層石塔(寶物 第一六六號)」이라 하겠는데 이 石塔은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弘濟洞 原位置에서 현재 景福宮內에 移建하였다.

③ 寶物 第三五七號로 指定되어 현재 서울 景福宮內에 保存되었는데 이 石塔은 上層基壇 面石의 塔銘中에 「大平十一年」이 보므로 高麗 第八代 顯宗二十二年(一〇三一 A, D)에 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註 ②를 參照. 이 石塔은 여러가지 資料를 참고하여 현재 建立年代를 高麗 第十代 靖宗 十一年(一〇四五 A, D)으로 推定하고 있다.

⑤ 寶物 第一九〇號로 指定되어 현재 서울 景福宮에 保存되었는데 이 塔은 圓空國師의 浮屠인 점에서 현재 建立年代를 高麗 第八代 顯宗 十六年(一〇二五 A, D)頃으로 推定하고 있다.